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모인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권면과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중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사랑을 권면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심각한 분열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고전13:1).**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능력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전13:2).**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과 좋은 직장, 많은 재산도 중요하지만, 가족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추어내기보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가르쳐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13:4-7).**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해줘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행복해." "괜찮아 다 잘될 거야."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어쩌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가 준비한 어떤 선물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고, 기쁜 일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 그 어떤 열매보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호산나교회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다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 찬송가 304장(통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다같이

1.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대표기도 ..... 인도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고, 평안하며, 우애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겪지 않고, 경제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으며,
관계에 어려움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과 친인척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 예배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3장 1-7절 ..... 다같이

1.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 .....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 인도자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 ..... 찬송가 559장(통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같이

1.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